



이탈리아
는 문화의 나라
다. 유네스코가 정한

완전성을 향한 이탈리아 문화의 꿈과 현실

《이탈리아 음악기행》과 《문화와 예술로 보는 이탈리아 기행》을 읽고

김명배 | 대구가톨릭대 이태리어과 교수

이탈리아는 세계 문화재의 보고며 서양문화의 줄기와 찬란한 꽃이 피어 있는 곳이다. 생명의 창조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출발한 이탈리아 문화는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로 완성됐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개성을 뚜렷이 나타냈다.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지배하는 전통주의·고전주의·이상주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세계적 문화재의 절반 이

상이 이탈리아에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세계 문화재의 보고며 서양문화의 확고한 줄기와 찬란한 꽃이 피어 있는 곳이다. 문화란 생명의 경이감에서 출발해 자연상태를 벗어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한 산물을 일컫는다. 문화의 최고경지는 '완전성'과 '영원성'의 보편적 전형인 '고전성'에 이르는 것이다. 고대 로마인은 고전 라틴문학을 정립시킴으로써 고전문화를 완성했고, 피렌체인들은 고대 그리스의 뿌리를 복구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르네상스 문화의 영원한 꽃을 피웠다. 서양문화의 전형은 그리스 로마를 기반으로 피렌체에서 완성됐다.

자유와 휴머니즘이 배어 있는 나라

이탈리아는 생명이 살아 숨쉬며 꿈틀대는 곳이다. 자유와 휴머니즘이 일상생활과 도시 곳곳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곳이다. 이탈리아와 유럽의 문화수도인 피렌체는 도시 자체와 생활이 예술이며 문화다. 음식·패션·건축 등의 생활문화부터 음악·미술·문학 등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넘쳐나고 있다. 예술과 문화의 고전성을 완성한 미켈란젤로·다빈치·단테·페트라르카·마키아벨리·갈릴레오 등 인간의 최고경지에 이른 천재들이 이룬 문화기 때문이다.

자유란 정체성을 의미한다. 인간 생명과 문화의 원동력인 휴머니즘의 뿌리는 독자적인 특성과 개성에 따라 살아 숨쉬는 각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로마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 성 베드로 성당, 황제들의 개선문 등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며 고대 로마제국과 기독교의 보편성을 완성한 로마의 모습이다.

수상도시, 곤돌라, 산 마르코 광장, 대운하 등을 연상시키는 베네치아는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이탈리아에서는 보기 드물게 공동체 이의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며 철저한 합리주의 정신을 갖춘 상인의 나라로, 투철한 현실주의자의 모습으로 비친다. 문명의 도시 베네치아는 마침내 문화의 꽃으로 탈바꿈한다. 19세기 초 베네치아는 음악·연극·미술·출판 등 유럽의 문화적 중심도시가 된다.

밀라노는 가장 도시다운 도시로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며 근면한 밀라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밀라노인들은 하늘을 찌르는 두오모 성당과 오페라의 전당인 스칼라 극장, 미술관 등의 문화 시설이 들어선 문화의 도시고 패션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려 한다. 나폴리는 빈곤과 혼돈과 범죄와 암흑조직이 난무하지만 정과 눈물과 유머로 인간의 애환과 진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문화에 스민 고전주의와 이상주의

나폴리인들은 인생을 칸초네로 노래하며 삶의 고통을 달랜다. 커터 앵글리의 《이탈리아 음악기행》(이수영, 백의)은 나폴리부터 베르가모, 크레모나, 베네치아, 밀라노 등 각 도시를 기준으로 음악과 작곡가 및 가수들의 정체성과 개성을 뚜

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인들은 의식주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여유있는 산책을 통해 일상 문화를 즐기고 축제와 카니발을 통해 마을과 도시 공동체의 전통과 유대를 확인하며 상상력과 독창성을 만끽한다. 다나카 치세코의 《문화와 예술로 보는 이탈리아 기행》(정선이, 예담)은 각 도시의 삶을 영화와 영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이 책은 스포츠인 축구를 주말의 도시 축제로, 자동차 산업을 페라리란 가장 아름답고 빠른 예술품으로 창조하고 자동차 경주라는 축제로 만드는 이탈리아인들의 문화 및 예술적 잠재력의 진면목을 부각시킨다. 이탈리아인들은 사회·경제·기술·산업·과학·스포츠 등 모든 문명을 문화로 창조하는 예술가들이다.

생명의 창조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출발한 이탈리아의 문화는 아름답고 완전한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로 완성됐으며, 자연스럽게 일상 생활 속에 실현돼 예술과 문화가 생생하게 창조되며 살아 있는 곳이 문화의 나라 이탈리아다. 르네상스 고전문화는 모형과 형식에서는 어느 정도 변하지만 완전성을 이룬 전통주의와 완전성의 전형인 고전주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이상주의가 중심이 돼 오늘날에도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지배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